

빈곤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매개효과*

설 경 옥[†] 백 상 은 이 선 아 박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과 누적된 위험(cumulative risk) 모형을 기반으로 빈곤 청소년이 일생 동안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또래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 청소년 317명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 행동문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이 완전 매개했고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가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가 외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했으며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이 부분 매개했고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은 그들이 경험한 양육자 변경 빈도가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고, 부모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은 친구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에 포함했다.

주요어 : 빈곤, 양육자 변경, 청소년 행동문제, 부모관계, 친구관계

* 본 논문은 이선아 2013 석사학위논문에서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3918, E-mail: koseol@ewha.ac.kr

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발달은 개인, 가족 그리고 환경의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며(Bronfenbrenner, 1994) 발달정신병리 이론 역시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 병리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개인과 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Cicchetti & Cohen, 1995). 생태학적 이론과 발달정신병리 이론에 기반을 둔 다중(multiple) 혹은 누적(cumulative) 위험 모형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결과는 단일 위험 요인보다 축적된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더 잘 예측된다(Rutter, 1981). 예를 들어, 빈곤 가정 아동의 경우 단순히 가정의 소득 수준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것보다 빈곤과 관련된 소음, 복잡한 환경 같은 물리적 요인 및 부모의 이혼과 폭력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같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이들의 행동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Evans & English, 2002). 본 연구는 빈곤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 누적된 위험 요인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빈곤 청소년의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 가정환경에서는 부모 같은 주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분리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 질,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 관계의 질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빈곤과 양육자 변경 빈도 그리고 행동문제

빈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문경숙, 김종백, 2010; Odgers et al., 2012), 장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했고(Fitzpatrick,

Piko, Wright, & LaGory, 2005) 자살 사고 및 시도 또한 증가했다(Bernburg, Thorlindsson, & Sigfusdottir, 2009).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이혼율과 별거율이 더 높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친척 집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빈곤 청소년은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Furstenberg, Brooks-Gunn, & Morgan, 1987; Schoon, Jones, Cheng, & Maughan, 2011). 이러한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양육자 변경이라고 일컬으며 이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부모의 사망, 이혼 및 별거 등을 이유로 단/장기간 한 부모(예: 모자가정, 부자가정) 혹은 부모 이외의 다른 양육자에게 위탁되는 것(예: 조손가정, 친인척 가정 등)을 의미한다(Thompson et al., 2012). 빈번한 주 양육자의 변경은 가족 간 갈등, 부정적인 정서 및 부모와의 관계 질 등의 가족 기능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청소년 발달에 있어 빈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Ackerman, Kogos, Youngstrom, Schoff, & Izard, 1999; Adam & Chase-Lansdale, 2002). 일회적인 주 양육자 분리 경험도 청소년 발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복적인 주 양육자 분리 경험은 청소년 발달에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발달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중시킨다(Appleyard, Egeland, van Dulmen, & Sroufe, 2005).

그러나 양육자 변경에 관한 연구는 애착 연구 전통에 따라 생애초기 3년 혹은 5년 이내 연구로 제한되어 있고 국외에서도 양육자 변경 경험과 아동 후기 혹은 청소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English, Thompson, Briggs, & Graham, 2005). 물론 생애초기 3년 안에 형성된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 및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Sroufe, 1996). 하지만 생후 3년 동안 주 양육자와 성공적인 애착을 형성했다더라도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이혼, 사망과 같은 이유로 야기된 양육자 변경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obak, 1999). 양육자 분리 경험과 아동기 이후 적응 문제에 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에 양육자와의 분리를 경험한 학령기 아동은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고했고(Ackerman et al., 1999)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6년 동안 양육자 변경 사건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가 증가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Milan, Pinderhughes,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6). 아동기 때 부모와 한 달 이상 분리되었던 경험은 청소년의 주요 우울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Takeuchi et al., 2002) 청소년기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혼전 임신 및 이혼 등의 결혼 생활 부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2012). 제한된 수이지만,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양육자 변경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부적응 문제까지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이 일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사실 국내에는 생애에 걸쳐 경험한 주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

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제한적이다. 국내 연구로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만 6세 이전의 부모 분리 경험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선주와 권정혜(2004)의 논문, 그리고 시설 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소 전 원 가족에서의 부모 분리 경험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정선욱(2002)의 논문이 전부이다. 김선주와 권정혜(2004)는 만 6세 이전에 경험한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이 부정적인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을 통해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의 우울 및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정선욱(2002)은 입소 전 원 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의 사망, 이혼, 부모와의 분리 등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는 시설 입소 후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 같은 외현화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아동과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과 행동문제 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있으나 아직 국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 간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다. 급격한 신체, 인지, 정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행동문제에 취약해지는 청소년기에(Lyons, 2004) 양육자 변경 사건은 청소년에게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는 아동기 못지않게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양육자 변경은 빈곤 가정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반복적인 양육자 변경 사건은 청소년 행동문제의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utter, 1981).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괄한 전체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와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육

자 변경 빈도와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설명한 기제, 즉 매개변인을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발달 환경인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로 가정하고 검증했다.

부모와 또래 관계 질의 매개효과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변화는 양육자 변경 경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육자 변경 이후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 질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Ruschena, Prior, Sanson, & Smart, 2005). 청소년과 부모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국내외 횡단 및 종단 연구에서 그 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예: 장휘숙, 2005; Tambelli, Laghi, Odorisio, & Notari, 2012). 최근 북미의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은 부모와 청소년의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예측했다(Vargas, Roosa, Knight, & O'Donnell, 2013). 종합해보면, 양육자 변경 사건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 질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가 부모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부모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은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 부모 관계가 친구 관계로 연결되는 것에 관한 가정은 최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Ladd, 1992).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호의존성, 지지, 갈등 해결과 같은 친구 관계의 유지와 형성을 위한 사회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이 더 만족스럽고 필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Bryant & Conger, 2002). 다음으로, 애착이론에 의하면 유아는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 및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는데(Bowlby, 1969), 내적 작동 모델은 이후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인지적 도식체계로 작용하게 된다. 즉,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형성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학습하고 이를 또래 관계에 일반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양육자 변경으로 인해 부모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아동에 비해 친구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장휘숙, 2008; Dykas, Ziv, & Cassidy, 2008). 그리고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또래 관계의 질은 이들의 행동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Hoglund & Leadbeater, 2007).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한 양육자 변경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는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청소년의 행동문제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 가정했다.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관한 각각의 연구모형을 설정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서로 매우 관련이 높으나 그 문제 영역이 각각 구분되고 (Lilienfeld, 2003) 발달 경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외현화 문제는 줄고 청소년기 인지 발달과 함께 내재화 문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ongers & Koot, 2003).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자 변경 경험은 외현화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am과 Chase-Lansdale(2002)의 연구에서 양육자 변경 빈도는 외현화 문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내재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Milan 등(2006)의 연구에서도 양육자 변경 사건은 내재화 문제보다 외현화 문제와 더 강한 상관이 있었다. 이에 반해, 또래 관계 문제는 외현화 문제보다 내재화 문제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주, 권정혜, 2004; Brendgen et al., 2013).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행동문제의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시점인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 그에 따른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연구한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완전 매개할 것이다. 또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는 부모 관계 및 친구 관계가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할 것이다. 둘째, 양육자 변경 빈도는 외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며, 이때 부모와의 관계가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외현화 문제에서도 청소년이 경험한 양육자 변

경 빈도는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를 통해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낙후된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광현, 2011)에서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선정된 서울시 한 중학교를 선택했고,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심사 받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을 빈곤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교생 7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했고,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빈곤 청소년 31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했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만 14세($SD=.83$)였고, 성별 분포는 남학생 159명(50.2%)과 여학생 158명(49.8%)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양육자 변경 빈도를 살펴보면 양육자 변경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77명(55.8%), 양육자 변경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0명(44.2%)으로 이중 1회 변경 103명(32.5%), 2회 변경 22명(6.9%), 3회 변경 11명(3.5%), 4회 변경은 4명(1.3%)이다. 본 연구는 빈곤과 양육자 변경 경험의 누적된 위험 요인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 가운데 양육자 변경 경험자만이 아닌 비경험자도 포함시켰으므로 빈곤이라는 단일 위험 요인 그리고 빈곤과 함께 양육자 변경의 누적된 위험 요인

의 경험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했다.

측정도구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부적응 학생의 조기 선별을 위해 개발된 도구인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검사(Adolescent Mental health &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AMPQ)(정승아, 안동현, 정선녀, 정운경, 김윤영, 2008)를 사용했다. AMPQ는 총 38문항으로 걱정 및 생각, 기분 및 자살, 학습과 인터넷, 친구 문제 그리고 규칙 위반(가해)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 AMPQ 척도에서 제시된 하위 영역이 본 연구 대상에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각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 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Tataryn, & Gorsuch, 1996)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본 연구 대상에는 내재화, 주의력 결핍, 품행장애, 친구 그리고 성 문제의 5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서 요인 적재 값이 작거나 이중 적재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5요인으로 재구성했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 및 우울에 관한 11 문항(예: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다.”, “이유 없이 일주일 이상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으로 요인분석 결과에서 단일요인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개별 문항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정 모수의 증가를 막아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했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외현화 문제는 주의력 결핍 5문항(예: “집중을 해야 할 때 집중을 못하고 딴 짓을 한다.”)과 성 문제 3문항(예: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기 어렵다(예: 자위행위, 야동, 야설 등).”)으로 구성된 하위 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했다. 품행장애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54로 매우 낮아 외현화 문제의 측정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내재화 문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였고, 꾸러미 1과 꾸러미 2 모두 .71이었다. 주의력 결핍과 성 문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0과 .65였다.

양육자 변경 빈도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서 반복적인 양육자 변경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경험한 총 양육자 변경 빈도를 확인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는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와 담임교사의 보고를 종합하여 측정했다.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생동안 경험한 보호자 변경 사건을 일어난 횟수만큼 기록하도록 했으며, 당시 나이, 변동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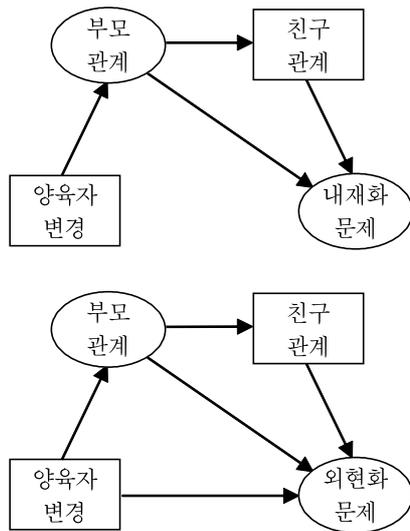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도록 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에 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담임교사 역시 청소년들의 양육자 변경 빈도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를 진행한 학교는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고, 학생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는 서면과 보호자 면담 및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서 받은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특별히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전원 교육복지대상 학생들로 담임교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환경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 보고와 담임교사 보고를 대조 및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최종 양육자 변경 경험 빈도를 산출했다. 양육자 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경험이 최소한 한 번에서 최대 4번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으로 나뉘며, Likert 6점 척도로 평정된다(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25문항을 사용했으며, 부모 애착은 신뢰 10문항(예: "우리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줍니다."), 의사소통 9문항(예: "내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해 6문항(예: "부모님은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세 하위 요

인인 신뢰, 의사소통, 그리고 이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순서대로 각각 .87, .83, 그리고 .72였다. 본 연구에서 한 쪽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사별은 총 317명의 학생 중 10명에 해당하며,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 참여한 모든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가능했다.

친구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검사(AMPQ)에서 사각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과 객관적인 요인 수 확보를 위한 parallel 분석(Wood et al., 1996)을 실시하여 재구성한 친구 문제 5문항(예: "친구 사귀기가 어렵거나 친한 친구가 없다.")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역 채점된 점수를 사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더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친구 관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1이었다.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AMPQ를 통해 측정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했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 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했다. 셋째,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부모 및 친구 관계

에 관한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8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끝으로,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및 매개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Shrout & Bolger, 2002)과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했다. 빈곤 청소년 317명은 평균 .62($SD=.86$)번의 양육자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대 위협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hompson 등(2012)의 연구에서의 평균 .32($SD=.46$)보다 높은 수치이고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를 연구한 Adam과 Chase-Lansdale(2002)의 평균인 .67($SD=.91$)과 비슷한 수준이다.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는 부모 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r=-.22, p<.01$), 외현화 문제 중 주의력 결핍($r=.14, p<.05$)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관계는 친구 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r=.16, p<.01$), 내재화 문제

($r=-.31, p<.01$) 및 외현화 문제($r=-.18,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친구 관계는 내재화 문제($r=-.44, p<.01$) 및 외현화 문제($r=-.27, p<.01$)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매개효과 검증

내재화 문제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에 관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CFI는 .993, TLI는 .974, RMSEA는 .064(90% 신뢰구간=.000-.119)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측정변인에 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부모 관계가 .75-.89($p<.001$), 내재화 문제 중 꾸러미 1은 .83, 꾸러미 2는 .80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부모 및 친구 관계가 이중 완전 매개하는 구조모형 검증 결과, χ^2 는 16.993, 자유도(df)는 12, CFI는 .994, TLI는 .986, RMSEA는 .036(90% 신뢰구간=0-.073)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 간 직접 경로를 포함한 경쟁모형 검증 결과, χ^2 는 16.134, 자유도(df)는 11, CFI는 .994, TLI는 .984, RMSEA는 .038(90% 신뢰구간=0-.076)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된 원래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Delta\chi^2(1, N=317)=.859, p<.10$).

내재화 문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했다(그림 2). 구체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부모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3(p<.001)$,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7(p<.001)$, 부모 관계와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 분석 결과 (N=317)

	1	2	2-1	2-2	2-3	3	4	4-1	4-2	5	5-1	5-2
1. 양육자 변경 빈도	1											
2. 부모 관계	.22**	1										
2-1. 신뢰	.20**	.91**	1									
2-2. 의사소통	.20**	.92**	.80**	1								
2-3. 이해	.18**	.86**	.66**	.66**	1							
3. 친구 관계	-.01	.16**	.17**	.10	.17**	1						
4. 내재화 문제	.10	-.31**	-.25**	-.26**	-.32**	-.44**	1					
4-1. 두려움 1	.09	-.29**	-.24**	-.26**	-.26**	-.46**	.89**	1				
4-2. 두려움 2	.10	-.28**	-.22**	-.23**	-.31**	-.36**	.93**	.66**	1			
5. 외현화 문제	.11	-.18**	-.15**	-.16**	-.17**	-.27**	.48**	.42**	.47**	1		
5-1. 주의력 결핍	.14*	-.17**	-.18**	-.14*	-.15**	-.29**	.46**	.39**	.46**	.85**	1	
5-2. 상 문제	.03	-.12*	-.07	-.13*	-.13*	-.15**	.31**	.28**	.29**	.79**	.35**	1
평균	.62	4.07	4.24	3.76	4.21	3.62	1.57	1.44	1.69	1.56	1.81	1.32
표준편차	.86	.81	.89	.93	.90	.49	.46	.50	.50	.40	.52	.45
왜도	1.64	-.18	-.36	-.04	-.31	-.194	1.23	1.67	.89	1.06	.81	2.18
첨도	2.83	-.18	-.10	-.23	-.27	4.62	1.7	3.22	.67	1.52	.47	6.77

주.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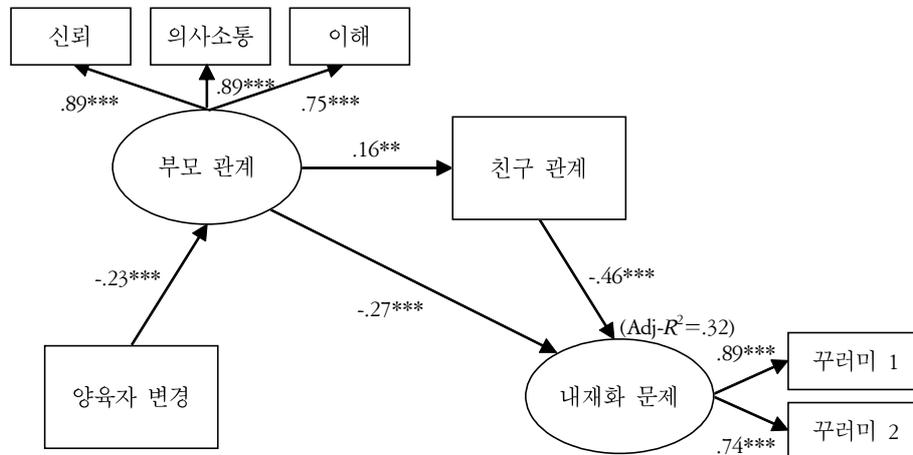


그림 2. 양육자 변경과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관계 지각의 이중매개모형
 주. ** $p < .01$,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친구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6($p < .01$), 친구 관계와 내재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6($p < .001$)이었다.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의 간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했다(표 2). 먼저 부

스트래핑을 통해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이중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갖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8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양육

표 2. 매개변인에 관한 직접, 간접, 총 효과 및 Sobel 검증 결과 (N=317)

독립변인	경로		종속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obel Test(z)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04*	-.04*	-2.26*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내재화 문제	-.27**	-.07*	-.34**	-2.61**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내재화 문제				3.03**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내재화 문제		.08**	.08**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04*	-.04*	-2.24*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외현화 문제	-.14*	-.05**	-.19*	-2.42*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외현화 문제				1.81†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외현화 문제	.12*	.04*	.17**	

주. † $p = .07$, * $p < .05$, ** $p < .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자 변경 빈도와 친구 관계 사이에서 부모 관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4$ 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7$ 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했다. Sobel 검증을 통해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갖는 각각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z=3.03, p < .01$) 양육자 변경 빈도와 친구 관계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z=-2.26, p < .05$). 또한, 친구 관계는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z=-2.61, p < .01$).

외현화 문제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CFI는 $.994$, TLI는 $.977$, RMSEA는 $.053$ (90% 신뢰구간= $.000-.11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측정변인에 관한 잠재변인의 요

인부하량은 부모 관계가 $.74-.90$ ($p < .001$), 외현화 문제 중 주의력 결핍이 $.73$ ($p < .001$), 성 문제가 $.47$ ($p < .05$)로 모두 유의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부모 및 친구 관계가 이중 부분 매개하는 구조모형 검증 결과, χ^2 는 13.162 , 자유도(df)는 11 , CFI는 $.996$, TLI는 $.991$, RMSEA는 $.025$ (90% 신뢰구간= $0-.067$)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 간 직접 경로를 제외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16.720 , 자유도(df)는 12 , CFI는 $.992$, TLI는 $.982$, RMSEA는 $.035$ (90% 신뢰구간= $0-.072$)로 경쟁모형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Delta\chi^2(1, N=317)=3.558, p < .10$)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된 원래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외현화 문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했다(그림 3). 구체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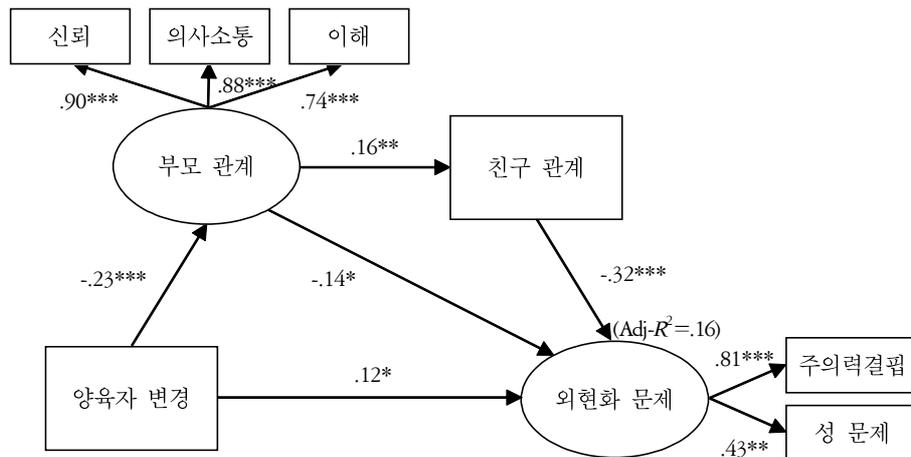


그림 3. 양육자 변경과 청소년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관계 지각의 이중매개모형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계수는 .12($p < .05$), 양육자 변경 빈도와 부모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3($p < .001$),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4($p < .05$),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6($p < .01$), 친구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2($p < .001$)였다.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의 간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했다(표 2). 먼저 부스트래핑 검증을 통해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이중 부분 매개하는 모형이 갖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양육자 변경 빈도와 친구 관계 사이에서 부모 관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도 -.05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Sobel 검증을 통해 양육자 변경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갖는 각각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z = 1.81, p = .07$) 양육자 변경과 친구 관계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z = -2.24, p < .05$). 또한, 친구 관계는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z = -2.42, p < .05$).

논 의

빈곤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

인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단순히 가정의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서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 별거와 같은 양육 환경 불안정성, 부정적 양육과 같은 부모-자녀의 지지적 관계 형성 방해, 또래 문제와 같은 학교 부적응과 관련이 높아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은 누적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Schoon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생 동안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검증하고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및 친구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 변경 빈도는 내재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외현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am 과 Chase-Lansdale(2002)이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양육자 변경 횟수와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Adam 과 Chase-Lansdale(2002)도 그들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 간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지만 내재화 문제는 상관이 없게 나타났다. 만 0 세부터 12 세까지 빈곤과 양육자 변경 사건 같은 발달 과정에서의 누적된 위험 요인과 아동기, 초기 및 후기 청소년기의 행동문제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기 아동기의 빈곤과 양육자 변경 사건 같은 누적된 위험 요인은 청소년기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고 일관되게 예측했고, 특히 이러한 누적된 위험 요인은 내재화 문제보다 외현화 문제를 더 일관적이고 강력하게 예측했다(Doan, Fuller-Rowell, & Evans, 2012).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입양 가정으로

이동하며 양육자 변경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연구에서도 양육자 변경 경험은 내재화 문제보다 주의집중 장애 같은 외현화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발달 심리학자들은 양육자의 빈번한 교체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ing) 발달의 지연 및 실패를 불러오고, 실행능력의 이상은 주의력 집중 장애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로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Bakermans-Kranenburg et al., 2011). 아동기 양육자 변경 경험과 후기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도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양육자 변경 경험은 후기 청소년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모두 예측했지만, 특별히 외현화 문제에 관한 예측력이 내재화 문제보다 더 높았고, 아동기 양육자 변경 경험과 후기 청소년기 외현화 문제의 높은 관련성 사이에는 양육자 변경 이후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실행능력 저하가 주요 매개변인으로 작용했다(Bakker, Ormel, Verhulst, & Oldehinkel, 2012).

둘째, 내재화 문제의 매개 모형 분석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는 내재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관계의 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본 연구의 가설대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관계의 질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관계 질의 완전 매개효과 및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의 이중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빈번한 양육자 변경 경험 자체가 우울 및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빈번한 양육자 교체 경험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필요한 지지와 애정을 제공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빈번한 양육자 변경 이후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친구와도 지지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또래를 통해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은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나타냈다. 이는 애착이론에서 제시한대로 생애 초기 양육자 변경과 같은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가 아동이 이후에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질과 만족감, 그리고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셋째, 양육자 변경 빈도는 외현화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동시에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관계의 질을 통해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는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빈번한 양육자 변경 경험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의 부재가 외현화 문제에 관한 양육자 변경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설명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육자 변경 빈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 관계의 질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함을 발견했다. 이는 빈번한 양육자 변경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부모와의 관계가 앞으로의 관계에서 '청사진'처럼 작용하여 이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친구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Sroufe et al., 2005). 다시

말해, 빈번한 양육자 변경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지적인 친구 관계 형성을 방해하게 되어 결국 주의산만과 같은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빈번한 양육자의 교체는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중요한 타인(예: 부모, 또래)과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여 이들의 사회 정서적 적응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Forman 과 Davies(2003)의 양육자 변경을 포함한 가정환경 불안정성, 이와 관련한 부정적 부모 양육과 청소년의 행동 문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환경 불안정성과 부모가 보고한 부정적 양육 방법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불안정성과 부모의 양육 방법에 관한 청소년들의 지각을 매개로 가정환경 불안정성과 부모 양육 방식이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나 Forman 과 Davies (2003)의 연구 결과 모두 빈번한 양육자 변경 사건은 그 자체보다 불안정한 환경 및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된 대인관계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 및 평가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예: 장휘숙, 2005; 최정아, 2012; Chen, Graham, 2012; Tambelli et al., 2012). 본 연구는 이에 더해 부모 및 친구 관계에 관한 청소년들의 지각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한 양육 환경 불안정성, 특히 양육자 변경 빈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빈곤이라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발달적 위험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자 변경(Furstenberg et al., 1987)과 양육자 변경과 관련 있는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의 관계 질에 관한 지각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생태학적 이론, 누적 위험 이론 모형 그리고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육자 변경에 관한 연구는 원래 이혼 가정 연구에서 부모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분리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Amato & Keith, 1991). 그런데, 빈곤 가정의 경우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직, 실직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주 양육자와의 분리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누적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같은 발달 문제에 더욱 취약해진다(Yoshikawa, Aber, & Beardslee, 2012). 본 연구는 누적된 위험 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통해 빈곤이라는 동일한 발달적 위험 요인을 갖더라도 양육자 변경 없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자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 양육자(예: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 환경에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를 높인다면 청소년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생애 초기 5년뿐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한 일생 동안의 양육자 변경 경험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시설보호 청소년(정선옥, 2002)이 아닌 일반 가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주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이 청소년기의 부모 관계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 및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한 청소년은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dam과 Chase-Lansdale (2002)의 연구 논의에서 제시된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의 관계를 부모와 친구 관계가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했으며 아동기(김선주, 권정혜, 2004)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및 외로움의 부정적인 정서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양육자 변경이 일어난 나이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애착 형성의 민감기이자 부모에게 의존성이 높은 생애 초기에 일어난 양육자 변경 사건은 청소년의 발달에 더 치명적인데 특히 만 5세 이전의 주 양육자와의 분리는 만 5세 이후의 분리 경험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더 큰 상관을 보였다 (Adam & Chase-Lansdale, 2002; Cavanagh & Huston,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의 횟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존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담임교사 및 사회복지사의 추가 보고를 수집하여 양육자 변경 빈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수집했으나, 각각의 양육자 변경 사건이 일어난 나이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담임교사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양육자 변경 경험 자료 수집과 관련한 또 다른 한계는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사건의 이유와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양

육자 변경의 이유가 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문제,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및 담임교사가 보고한 양육자 변경 이유에 따른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차이 검증을 실시했으나 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변경 이유에 따라 실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양육자 변경 나이와 마찬가지로 변경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사건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들이 보고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 그리고 행동문제와의 관계의 영향력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의 빈곤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빈곤 청소년들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MPQ가 사용되었는데, 그 하위 영역, 특히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는 주의력 결핍 그리고 성 문제의 내적합치도가 각각 .70 그리고 .65로 다소 낮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3,6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AMPQ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김수진, 이정숙, 권영란, 오미라, 김보영, 2009)에서도 총 8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42에서 .81로, 특히 성 문제 영역에 관한 신뢰도는 .42로 본 연구 결과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뿐 아니라 AMPQ 척도 자체가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 청소년들의 양육자 변경 경험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정에서의 부모 그리고 학교에서의 또래 친구 관계를 측정했는데, 청소년 개인 특성에 관한 변인과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의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한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양육자 변경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양육자 변경 시기, 변동 이유 등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양육자 변경 빈도, 양육자 변경 시 청소년의 나이와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한 Adam과 Chase-Lansdale(2002)은 주 양육자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청소년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양육자 분리 사건의 시기 및 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결과,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그리고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기 때 경험했던 양육자 분리 사건이 외현화 문제 및 성 행동을 예측하고 특히, 외현화 문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한 양육자 분리와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양육자 변경 경험과 그에 따른 주 양육자와 또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 변화, 그리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 경로를 추적 연구하여 이들 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교육복지투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빈곤과 양육자 변경 빈도 같은 누적된 위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 개인 변인으로

서 자기조절능력(Doan et al., 2012), 가정환경 맥락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학교 환경 맥락에서는 교사의 지지 같은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주, 권정혜 (2004). 6세 이전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37-655.
- 김수진, 이정숙, 권영관, 오미라, 김보영 (2009). 고등학생용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질문지(AMPQ)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대한간호학회지*, 39(5), 700-708.
- 문경숙, 김종백 (2010). 가정 경제의 변화에 대한 지각과 중간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39-56.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광현 (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재정 배분방안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1), 1-24.
- 장휘숙 (2005).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문제행동 및 정체감 발달수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25-141.
- 장휘숙 (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69-87.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정승아, 안동현, 정선녀, 정윤경, 김윤영 (2008).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검사 개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7(2).
- 최정아 (201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부모, 또래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31-455.
- Ackerman, B. P., Kogos, J., Youngstrom, E., Schoff, K., & Izard, C. (1999). Family instabilit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258-268.
- Adam, E. K., & Chase-Lansdale, P. L. (2002). Home sweet home(s): parental separations, residential moves, and adjustment problems in low-income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92-805.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ppleyard, K., Egeland, B., van Dulmen, M. H. M., & Sroufe, L. A. (2005). When more is not better: the role of cumulative risk in child behavior outcom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3), 235-24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kermans-Kranenburg, M. J., Steele, H., Zeanah, C. H., Muhamedrahimov, R. J., Vorria, P., Dobrova-Krol, N. A., Steele, M., van IJzendoorn, M. H., Juffer, F., & Gunnar, M. R. (2011). Children without permanent parent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III. Attachment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institutional care: Characteristics and catch up.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6(4), 62-91.
- Bakker, M. P., Ormel, J., Verhulst, F. C., & Oldehinkel, A. J. (2012). Childhood family instability and mental health problems during late adolescence: A test of two mediation models-The TRAILS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1(2), 166-176.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nburg, J. G., Thorlindsson, T., & Sigfusdottir, I. D. (2009). The spreading of suicidal behavior: The contextual effect of community household pover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the mediating role of suicide sugges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8(2), 380-389.
- Bongers, I. L., & Koot, H. M.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Books.

- Brendgen, M., Vitaro, F., Bukowski, W. M., Dionne, G., Tremblay, R. E., & Boivin, M. (2013). Can friends protect genetically vulnerable children from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277-289.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pp. 1643-1647). Oxford, England: Elsevier.
- Bryant, C. M., & Conger, R. D. (2002). An intergenerational model of romantic relationship development. In A. Vangelisti, H. Reis & M. Fitzpatrick (Eds.), *Stability and change in relationships* (pp. 57-82).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vanagh, S. E., & Huston, A. C. (2008). The timing of family instabi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5), 1258-1270.
- Chen, X., & Graham, S. (2012). Close relationships and attributions for peer victimization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5*(6), 1547-1556.
- Cicchetti, D., & Cohen, D. (1995). Perspectives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 (pp. 3-20).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Doan, S. N., Fuller-Rowell, T. E., & Evans, G. W. (2012). Cumulative risk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maternal responsiveness and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8*(6), 1529-1539.
- Dykas, M. J., Ziv, Y., & Cassidy, J. (2008).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2), 123-141.
- English, D. J., Thompson, R., Briggs, E. C., & Graham, J. C. (2005). Toward a definition of neglect in children under four years old. *Child Maltreatment, 10*, 190-206.
- Evans, G. W., & English, K. (2002). The environment of poverty: Multiple stressor exposure, psychophysiological str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3*(4), 1238-1248.
- Fitzpatrick, K. M., Piko, B. F., Wright, D. R., & LaGory, M. (2005). Depressive symptomatology, exposure to violence, and the role of social capital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262-274.
- Forman, E. M., & Davies, P. T. (2003). Family instability and young adolescent mal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quality and adolescent appraisals of family secur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1), 94-105.
- Furstenberg, F. K., Brooks-Gunn, J., & Morgan, S. P. (1987). *Adolescent mothers in later life*.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lund, W. L., & Leadbeater, B. J. (2007). Managing threat: Do social-cognitive processes mediate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djustment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525-540.
- Kobak, R. (1999). The emotional dynamics of disruption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21-43). New York: Guilford Press.
-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Perspectives on processe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ls of linkage* (pp. 3-34).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ilienfeld, S. O. (2003). *Science and pseudoscience i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Lyon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 Y.: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ilan, S., Pinderhughes, E. E.,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6). Family instability and child maladjustment trajectories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 43-56.
- Odgers, C. L., Caspi, A., Russell, M. A., Sampson, R. J., Arseneault, L., & Moffitt, T. E. (2012). Supportive parenting mediates neighborhoo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from ages 5-12.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3), 705-721.
- Ruschena, E., Prior, M., Sanson, A., & Smart, D.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family transi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4), 353-363.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323-356.
- Schoon, I., Jones, E., Cheng, H., & Maughan, B. (2011). Family hardship, family instability, an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6(8), 716-72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3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In K. E. Grossmann, K. Grossmann & E. Waters (Eds.), *The power of longitudinal attachment research: From infancy and childhood to adulthood* (pp. 48-70). New York: Guilford.

- Takeuchi, H., Hiroe, T., Kanai, T., Morinobu, S., Kitamura, T., Takahashi, K., & Furukawa, T. A. (2002). Childhood parental separation experienc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acute major depress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3*, 215-219.
- Tambelli, R., Laghi, F., Odorisio, F., & Notari, V. (2012).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Itali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1465-1471.
- Thompson, R., Wiley, T. R. A., Lewis, T., English, D. J., Dubowitz, H., Litrownik, A. J., Isbell, P., & Block, S. (2012). Links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and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in high risk you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 293-302.
- Vargas, D. A., Roosa, M. W., Knight, G. P., & O'Donnell, M. (2013). Family and cultural processes linking family instability to Mexican America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3), 387-397.
- Wood, J. M., Tataryn, D. J., & Gorsuch, R. L. (1996). The effects of under and overextraction of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Psychological Methods*, *1*, 354-365.
- Yoshikawa, H., Aber, J. L., & Beardslee, W. R. (2012). The effects of poverty on the mental, emotional, and behavioral health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7*(4), 272-284.
- 1차원고접수 : 2014.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6. 03.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5.

Caregiver Separation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Impoverished Adolescents: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as Mediators

Kyoung Ok Seol

Sang Eun Baek

Sun Ah Lee

Ji Eu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aregiver separation frequency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317 impoverished adolescents. We also investigated how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mediated based on ecological systems theory and the cumulative risk model. More frequent caregiver sepa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s but was no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However, parental separ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were fully mediated by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The link between parental separat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was partially mediated by one's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In sum, when adolescents experienced frequent separation from parental figures, they were more likely to develop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turn,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se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ey words : caregiver separation, behavioral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